



BNK금융, 환경의날 맞아 ESG 실천 캠페인

BNK금융그룹이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하는 ESG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BNK금융은 '플라스틱 free! 커피 free!' 이벤트를 진행해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지참하고 그룹IT센터와 부산은행 본점에 있는 사내 카페를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커피 등 각종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BNK금융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 '바다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친환경 소설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의 차완영대표이사(사진)가 지난 달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차 대표는 다양한 국책연구사업 수행과 산학협력을 통해 해조류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 국내 해조류 산업 및 자원 활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제 26회 바다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수지 기자

신보, 윤대희 이사장 연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오는 5일 23대 이사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신보는 윤대희 현 이사장이 1년 연임되어 임기가 2022년 6월 4일로 연장됐다고 6일 밝혔다. 윤대희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신보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대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보의 혁신도 주도해 왔다. /이영석기자 ysl@



김양수 네오팜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뷰티&헬스 전문기업 네오팜의 김양수 대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김양수 네오팜 대표는 김희선 이민진 전무의 지목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네오팜



셴커코리아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셴커코리아는 디어크 루카트 대표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의 지목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소설 미디어 캠페인인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도로 안전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셴커코리아



박 상 오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 LAW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통신을 위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현재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도 점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고 교류도 온라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 등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상도용(impersonation)이다. 이러한 신상도용은 유명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신상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먼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순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이유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상도용

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중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칭범이 유명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유명인 등이 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등에 인격표지권 등의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래에 퍼블리시티권이 법령 등으로 인정된다면 사칭범의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

해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칭범이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유명인으로 행세했다는 것(부정적인 행세를 한 것을 포함한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칭범이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사칭범)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D'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란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고할 만 하다.

이외에도 사칭범의 신상도용 행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를 넘는 수준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칭범이 단순히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료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71조) 등도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법률 등에서 신상도용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州)에서 신상도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뉴욕 주는 '2급 신상도용(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이라는 죄목하에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나 신상도용이 사기, 협박,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별개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 등을 통해 신상도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삼성SDI, 코로나 블루 이기는 임직원 이색취미 소개

사내 '일상다반사' 캠페인 화제 실전 사격 스포츠 최거용 프로 일러스트 재능 황예슬 프로 관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미 활동에 제약이 많은 현재 삼성SDI의 '일상다반사' 캠페인이 화제다.

삼성SDI는 6일 일상다반사 캠페인이 당사 사내 소통채널 'SDI talk'을 통해 월 1회 진행되는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들의 취미 등을 소개해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황예슬 프로 최거용 프로

현재까지 ▲일러스트 그리기 ▲실전 사격 스포츠 ▲가구 제작 ▲혼라이딩(혼자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진 임직원들의 사연이 소개돼 이목을 끌었다. 그 가운데 최근 게시된 황예슬 프로와 최거용 프로의 취미에는 많은 임직원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흥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근무하는 황예슬 프로는 동료들 사이에 소문난 '금손'이다. 동료들의 가족사진, 웨딩 사진들을 일러스트로 그려 선물해왔기 때문이다.

황프로의 이러한 재능은 업무에 있어서도 빛을 발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기존 텍스트 기반에서 일러스트로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해 임직원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 사업장에서 배터리 품질 안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최거용 프로는 '실전 사격 스포츠'가 취미다.

실전 사격 스포츠란 영화 '존 워'에서 주인공이 총기 액션을 위해 배웠다는 것에서 유명해졌는데, 실탄을 이용한 권총, 소총, 샷 건, 에어소프트 건 등을 사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춰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다.

전영현 사장은 "삼성SDI 임직원들의 숨은 재능이 많은데 부럽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I는 이 같은 캠페인 외에도 전 임직원의 정기 심리검사 및 상담센터 운영 등 코로나 블루 극복과 임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교보생명 '페이퍼리스'로 친환경·디지털 전환

고객 업무처리 속도 단축

교보생명은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에서 종이 없이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문서 업무 환경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종이 서류 작성은 터치 모니터를 활용한 전자작성으로, 처리 결과 영수증은 알림톡 자동발송으로 대체한다. 증빙서는 자동 이미지로 보관할 예정이다.

페이퍼리스 환경은 고객 입장에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고객플라자 창구에서 전자문서 업무를 시연하고 있다. /교보생명

서 업무 처리 속도가 단축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고객용 터치모

니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화면 확대 등 가독성도 높아져 고연령 고객층의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은 서류 분실 등 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하는 만큼 정보 보안성이 강화돼 고객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류 스캔이나 영수증 보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 문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도 절감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동우 ◇3급 승진 △고용정책총괄과장 편도인 △직업능력평가과장 윤수경

부음

▲ 강영미씨 별세, 이현구(서울소년부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씨 부인상, 이병욱·이혜인씨 모친상 = 6일 오전 6시, 안양장례식장 6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의왕시 하늘섬터. ☎ 031-477-0096